



내 말씀 광언인가 저 화상 구경하세
미친 소리 사람, 비판의 대상
 남존한량 개똥이는 부모덕에 편히 놀고
무위도식하는 사람
 호의호식 무식하고 미련하고 용통하여
소견머리가 없고 매우 미련하여
 눈은 높고 손은 커서 가량없이 주체넘어
주체 파악을 못하여
 시체 따라 의관하고 남의 눈만 위하것다 <중략>
철 따라 실속없이 걸치레에 치중한다
 내 무식은 생각 않고 어진 사람 미워하기

 후할 때는 박하여서 한 푼 돈에 땀이 나고

 박할 때는 후하여서 수백냥이 헛것이다 대구, 대조

승기자를 염지하니 반복소인 허기진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내 몸에 이할 대로 남의 말을 탄치 않고
이롭다면 꺼리지 않다
 친구 벗은 좋아하며 제 일가는 불목하며
화목하지 않다
 병날 노릇 모두 하고 인삼녹용 몸 보키와
몸 보신하고
 주색잡기 모두하여 돈주정을 무진하네
돈을 마구 쓸
 부모조상 돈망하며 내 인사는 나중이요
아주 잇고
 남의 흥만 잡아넌다 내 행세는 개차반에

경계판을 깊어지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잘못을 깨우치는 말이 적힌 나무판
 시비에 선봉이라

< 해석 >

내 말이 미친 소리인가 저 인간을 구경하게.
 남존의 한량 개똥이는 부모 덕에 편히 놀고
 호의호식하지만 무식하고 미련하여 소견머리가 없는데다가
 눈은 높고 손은 커서 대중 없이 주체 넘어
 유행에 따라 옷을 입어 남의 눈만 즐겁게 한다.
 자기가 무식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어진 사람을 미워하며,



후하게 해야 할 곳에는 야박하여 한 푼을 주는 데도 아까워하고
 박하게 해도 되는 곳에는 후덕하여 수백 냥을 낭비한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하니 소인들이 비위 맞추느라 배가 고평 지경이다.
 자기에겐 유리하면 남의 잘못된 말도 따지지 않고,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지만 제 친척들과는 화목하지 못하며,
 건강 해칠 일은 모두 하고 인삼 녹용으로 몸 보신하기와,
 주색잡기를 모두 하여 한없이 돈을 함부로 쓰네.
 부모와 조상은 아주 잊어버리고 자기가 할 도리는 나중 일이요,
 남의 흉만 잡아 낸다. 자기 행동은 개차반이면서
 경계판을 짊어지고 다니며, 없는 말도 지어 내고
 시비에 앞장을 선다.

갈 래 : 서사 가사

성 격 : 교훈적. 풍자적. 경세적

주 제 : 도덕적 타락에 대한 비난과 경계

구 성 : 세 명의 우부(어리석은 남자)를 등장시켜서 각각 서사, 본사, 결사의 3단으로 구성하였다.

- 서사 : 인물에 대한 화자의 평이 제시되어 있고,
- 본사 : 도덕적 타락과 비행(非行)이 열거되어 있으며,
- 결사 : 패가망신(敗家亡身)한 이후의 행색이 묘사되어 있다.

율 격 : 3.4조(4.4조) 4음보의 연속체

서사에는 인물에 대한 화자의 평이 제시되어 있고, 본사에는 도덕적 타락과 비행이 열거되어 있으며, 결사에는 패가 망신한 이후의 행색이 묘사되어 있다.

출 전 : 초당문답가(선조 숙종 - 영조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됨. 백성을 경계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만든 노래인 '초당문답가(草堂問答歌)' 또는 '경세설(警世說)'이라고도 함.)

의 의 : 조선 후기 양반층의 도덕적 타락을 사실적으로 반영하였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널리 불리웠던 가사 작품으로 19세기 이후 양반 사회가 당연했던 현실적, 경제적 몰락과 도덕적 타락, 봉건적 가치관의 붕괴를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해 설

작자 연대 미상의 가사로, 어리석은 짓을 일삼는 남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그들을 계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쓴 작품이다. 어리석은 한량이 부모 덕분에 잘 살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패가 망신(敗家亡身)한다는 내용으로 서민 사회의 실상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조선 후기의 가사이다. 이 작품은 다른 경계적인 가사들이 조금 딱딱한 점에 비해서 그들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교훈과 더불어 웃음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과 다른 점이다. 이 노래는 '개똥이, 꿈생원, 평생원'의 못난 세 남자를 등장시켜, 이들의 못난 짓을 빠짐없이 열거함으로써, 교훈과 더불어 흥미와 웃음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세 남자는 모두 양반들로 윤리 규범을 어기고 용렬한 짓은 일삼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윤리 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할 정도로 타락한 사회상이 <우부가>의 비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이 실려 있는 '초당문답가'는 19세기 후반 양반 사회가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의 양반층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데, 특히 '우부가'의 경우 양반 사회가 당연했던 경제적 몰락과 도덕적 타락을 아주 리얼하게 그려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